

2015년도 포장기술사 합격자

Professional Engineer Packaging

기술경쟁력에 의한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제품의 외형적인 포장 및 포장디자인도 기업의 경쟁요소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포장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해당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살림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의 품질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인력양성이 요구되어 포장기술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국내 포장산업의 최고 전문가인 포장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1974년 생산관리기술사(디자인 및 포장)로 신설되어 1983년 생산관리기술사(포장)로 변경된 후, 1991년 현재의 포장기술사로 자리잡게 됐다.

포장기술사는 포장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포장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포장을 진단하며, 물류부문과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포장 표준화 업무 및 신규사업을 조사하는 등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은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인 필기시험과 구술형 면접을 통해 시험이 이뤄진다.

2015년도에는 총 4명의 포장기술사가 합격했다. 본 고에서는 2015년도 포장기술사 최종합격자들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 김대용 포장기술사(충남대 연구교수)
- 김창섭 포장기술사(삼성전자 CS환경센터 포장팀 차장)
- 김혜명 포장기술사((주)오리온 안산공장 생산팀 팀장)
- 이영수 포장기술사(새한프라텍 기술연구소 소장)

포장이란 모든 자연과학을 이용하는 응용과학



김 대 용
충남대 연구 교수

2015년도 포장기술사로 탄생한 김대용 박사는 “박사 과정을 마치자마자 곧이어 시작한 포장기술사 자격증 도전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전하면서 “특히 지긋한 연세에도 멋진 명강의를 해 주신 김청 회장님과 대학교 졸업 후 포장의 세계로 이끌어주시고 석사학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박인식 포장기술사회 회장님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김대용 박사는 올해 3월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김제 소재지) post doc.(계약직) 및 충남대학교 연구교수(계약직)로 활약하며 ▲ 포장 및 완충재료의 물성 계측 및 분석 ▲ 물류 제품의 정적/동적 거동 특성 계측 및 분석 ▲ 물류 포장시스템의 적정 포장 설계 도면화(2D/3D) 작업 및 개발 ▲ 물류 포장시스템의 수송 시뮬레이션 시험(진동, 충격 및 완충)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포장분야의 충격, 진동에 대한 분석의뢰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포장분야 중 물류, 유통 환경에서 발생하는 충격, 진동 등에 대한 계측, 분석, 시뮬레이션 방법 등을 연구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듣고, 포장기술사를 준비하게 됐다.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주로 하며 기술사를 준비했다”는 김 박사는 “특히 핵심단어를 이용하여 서술해 보는 연습을 자주 하였고 그 외에 ‘출제자라면

어떠한 문제를 낼 것인가’ 고민해 보면서 기출문제 이외의 내용을 공부했다”고 밝혔다.

김대용 박사는 ‘포장기술사’는 전문가 과정인 만큼, 짧은 기간동안 준비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처음 보는 공정이나 과정을 관련 책과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포장기술사 시험 제도를 약간 수정하면 많은 부분에서 자동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며, 각 교시별로 범위 혹은 과목을 정해놓는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1교시 패키징 개론 및 최신 포장분야 동향 등으로 수험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시험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추가로 인하여 편람이나 책을 통해 소개해야 하는 최신 개정판이 나오게 될 수 있고 포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제품마다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이미 발생한 실제 문제(현상)를 해결하는 것이 포장분야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때, “포장이란 모든 자연과학을 이용하는 응용과학”이라고 피력하면서, 타 분야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및 전문가들의 지식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활발한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단체의 역량이 커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용 박사는 앞으로 포장관련 시험 및 연구에 관련한 경험을 토대로 포장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류·유통 산업에서 박사과정 동안 배운 비파괴 센싱 및 모니터링 기술은 포장과 접목할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oT, intelligent package 기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이러한 분야에 달려 있으므로 많은 노력을 IoT, Intelligent package의 개발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새롭게 배운 포장세계를 더욱 숙련하여 많은 곳에 쓰임이 있는 포장기술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김대용 박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포장기술사 간 교류통해 업계 발전 이루고 싶어



김 창 섭
삼성전자 CS환경센터 포장팀 차장

2015년도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김창섭 삼성전자 CS환경센터 포장팀 차장이 최종 합격했다.

“전자제품의 포장분야에서 일을 한지 올해 10년 째 접어드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제 자신에 대한 인

정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장기술사 합격을 통해 포장에 대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김창섭 차장은 “앞으로 다방면에 계시는 포장기술사 선배님들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통해 포장산업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합격소감을 전했다.

삼성전자 CS환경센터 포장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는 현재, 포장운송 시험규격 제정과 친환경 포장재 개발 등 전자 가전제품(TV/핸드폰/세탁기/냉장고/프린터 등)의 포장과 관련된 품질, 개발, 환경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수출되기 때문에

물류 표준화 및 운송품질 개선을 위한 물류환경 측정 등에 대한 업무도 진행 중이다.

그는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파악해 가는 것에 점점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다방면의 여러 포장 전문가들과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시작을 위해 포장기술사 시험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나름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포장분야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김창섭 차장.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도 작은 부분임을 알게 되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몰랐던 부분들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내에는 포장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이론이나 분석적 접근방법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 차장은 “포장에 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 이론에 근거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포장기술사라고 생각한다”며 “포장분야의 위상을 세우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생각 아래 그는 “여러 분야의 포장기술사들과 교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이론 등을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접목시켜서 포장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포장업계 및 관련 단체에서 포장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장분야를 결속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김창섭 포장기술사.

그는 포장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장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업계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

포장의 중요성 널리 알리고 싶어



김 해 명

(주)오리온 안산공장
생산팀 팀장

“포장 기술사가 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신 선배님들과 시험 준비에 힘써주신 지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장기술사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오리온 안산공장 생산팀 김해명 팀장은 “한 분야

에서 15년이상 근무하다보니 포장제에 대해 편협한 시각에 사로 잡힌다”는 생각에 기술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연포장 회사 ‘아이팩’에 입사, 포장 개발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이후에는 생산 관리와 함께 중국에서도 품질 교육을 하는 등 다각도로 업무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다.

2015년 6월부터 (주)아이팩에서 (주)오리온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 현재는 (주)오리온 안산공장에서 생산과 개발 업무를 진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포장의 다른 분야를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포장기술사에 응시했다는 김해명 팀장.

그는 포장 업계 전반에 출판되어 있는 책을 읽고, 기출 문제를 토대로 분석하며 공부하고 특히 최근 포장 분야 이슈사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포장 기술사 선배님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구했

고 도움도 많이 받은 것이 합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는 김 팀장은 그가 하고 있는 분야에 다양하게 접목을 시켜, 향후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치는 않았을터.

대부분의 포장기술사 준비생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듯, 그 역시 포장분야의 경우, 다른 영역보다 범위가 넓어 어려웠다고 전한다.

특히 참고할 만한 책이 예상외로 적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분야가 아닌 분야에서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점을 손꼽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향후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다양하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포장기술사 면접시험에서는 관련 지식을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덧붙여 기술사로써 포장업계에 이바지 할 수 가능성까지 평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명 팀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포장의 인식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제품 포장은 단순히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편의성과 판매 촉진성을 넘어서 환경 친화적인 것까지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위해 회사와 사회에서 포장의 중요성을 더 알리고 포장의 역할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는 포장기술사 합격을 계기로 여러 사람들에게 포장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포장기술사 합격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전하는 김해명 포장기술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플라스틱 성형분야의 고급 개발 인력 양성 주력



이 영 수
 새한프라텍(주)
 기술연구소 소장

2015년도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이영수 소장은 “공부하는 동안 아낌없는 배려로 도움을 주신 직장 동료들과 가족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렵게 얻은 자격증인 만큼 회사의 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불어 최선을 다해 격조 높은 포장 문화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수 소장은 플라스틱 성형 업계인 새한프라텍(주)에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등을 주원료 하는 다이렉트 블로우 성형, PET이축연신 블로우 성형 용기 및 사출성형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일에 종사, 현재 기술연구소에서 고객제안 신제품개발, 공정개선 및 미래신사업 발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 업무를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회사 연구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포장산업 생태계의 중심에 들어가 고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는 포장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기술사 기출문제의 답변을 정리하며 공부하고, 한편으로는 포장관련 월간지를 정기구독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포장산업의 경우, 광범위한 특징으로 인해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늘 어려움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역시 포장의 범위가 너무 넓고 생소한 분야가 많아 용어 및 개론 확립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위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좋을 결실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는 앞으로 포장기술사 제도가 선진국 기술사시험제도의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기술사시험제도를 국가간 인증되는 형식으로 개편되어 국가 간 상호인정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장기술사 합격은 개인적으로 포장기술전문가로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영수 소장.

그는 앞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포장기술 정보의 습득과 기술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포장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특히 플라스틱 성형분야의 고급 개발 인력 양성 및 정부 R&D사업 적극 참여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성형 업계는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며 대부분 수요기업에 종속된 업체간 상호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하는 이영수 소장. 그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 수준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 기능 인력의 양성, 컨설팅 업무 및 자체 연구개발 능력 향상시키며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패키징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 도모 및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인프라 확대 등 점진적으로 제도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키징은 진실과 거리가 먼 걸치레, 과장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제품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사랑과 정성의 집합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영수 포장기술사는 앞으로도 포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